

# 순창군 섬진강 생태관광지로

### 생태식물·교목 식재 통해 동물서식처·수변 완충 역할·경관개선 도모

순창군이 장군목 주변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해 섬진강 장군목 일대를 국내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 1사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사업은 2024년까지 총 72억 원이 투자된다.

이사업은 요강바위 등 각종 지리적 자원은 물론 옛 농경문화의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장군목 주변을 지역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7억 5천만원을 들여 수변 생태벨트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변 생태벨트 사업은 적성동 동계면 섬진강 길 6.8km 구간의 수변계를 따라 생태식물이나 교목을 식재해 동물서식처와 수변 완충 역할을 물론 경관 개선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하천생태를 활용한 사업도 추진한

다. 석산리 산 93번지 일원에 생태습지와 농경지 습지, 번식 연못 등을 갖춘 자연생태정원과 친환경 참지 생태야영장 및 생태체험기반 시설도 만든다.

또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다양한 문화체험 요소 및 탐방로를 연계해 숲 생태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한다.

적성면 3개마을과 동계면 4개 마을에 빈집을 활용해 널뛰기, 비석치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민박시설도 조성해 주민들의 농의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실숙박단지와 연계성도 강화한다. 마실숙박단지에서 예코가든 2.2km 구간에만내과과 전망대, 등산로, 보행데크 등을 갖춘 생태탐방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숲체험과 나무채취, 산새찾기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관찰로 13km와 강경마을 다랭이 논을 활용한 '구불구불 다랭이 두렁길' 조성도 구상중이다.

군은 주변 용광산 치유의 숲 등 이 서서히 본 모습을 갖추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이 완성되면 전북 14개 생태관광지 중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전라북도 토틀 관광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섬진강 장군목 일원은 기업과객과 수변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관광의 최적지"며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전국제일의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 등 수요 조사

고창군(박우정 군수)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이 2005. 12. 31. 이전 차량이 해당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경유-LPG),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2017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04. 12. 31. 이전 연식인 굴삭기와 지게차, 로더, 기중기 4개 기종에 대해서만 엔진을 개조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어 이에 발 맞춰 군에서도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보건의료원, 취약계층 대상 구강건강 교육 실시

### 7개소 방문 검진·상담 진행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결혼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해 취약계층 치아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7월 11일부터 8월까지 취약계층이 생활공간 7개소를 직접 찾아가는 치아건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이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한 곳은 노인복지 센터와 육천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대학 등이다. 이곳은

주로 노인층이 많이 생활하는 곳으로 특히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은 또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상담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계층별로 세분화 했다. 어르신들에게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칫솔질 교육 및 틀니 관리 방법과 구강 건조증(입마름) 방지를 위한 입체조 등에 중점을 뒀고 교육했다. 또 노인복지(틀니) 보철사업,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등

과 같은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구강보건사업에는 치과외사의 무료검진 및 상담을 통한 지시 하에 관내 치과 기공소 협회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간단한 보철물 보정 및 틀니세척도 진행해 호응을 얻은바 있다.

정영근 보건의료원장은 "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의 질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월 3회 이상 2일~14일 이내

남원시는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하는 민원은 수시 개최하여 월3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위원회는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의 연접기간이 폐지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개정되면서 오히려 민원처리에는 30일이 추가되어 총 45일이 소요됐다. 이에 남원시는 월 3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시 운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0일 이내 처리하던 것을 최소 2일에서 14일 이내 완료처리를 30일이 추가되어 총 45일이 소요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민원인의 비용 경감과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추가 단축 및 절차 개선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소방서기계끼임 사고자 구조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지난 15일 오전 6시 55분경 고창군 대신면 성남리 634-1 소재 우사에 출동하여 사료배합기계에서 작업중 손이 끼인 오

구조자 김모씨(김성자 75세, 여)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와 구급대는 유압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여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고창소방서 119구조대장(염정길)은 "기계 끼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기계 전체를 해체해야 할 경우가 많아 구조가 쉽지 않다"며 "기계를 다룰 때는 반드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임실군은 16일 군청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운동은 도내 환자에게 공급되는 수혈용 혈액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절기에 적혈액

원 채혈 차량을 지원받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에 따른 채혈금지지역 확대, 약물복용 제한, 문진강화, 혈액 안전성 강화 등으로 헌혈인구가 감소돼

수혈용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은 이웃과 주변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건강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헌혈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우수한 모범업소 신청·접수

### 31일 까지... 시설·맛·위생관리 일반음식점·급식소 대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오는 31일까지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고 시설, 맛,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모범업소 신청,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으로는 식사료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쾌적한 건물환경, 깨끗한 주방과 원재료 보관, 친절함 종사자 서비스를 실천하는 업소는 보건소 위생안전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업소와 함께 기존 모범업소도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기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용자, 이용안내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관장, 출입 검사면제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게시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와 식중독예방 물품,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남원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가 우수한 모범업소를 매년 10월 1일 정기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3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청용면 명동마을, 도농 벽 허무는 교류의 장 마련

청용면 명동마을은 16일 전주시 완산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초청해 화합을 도모하고 도농 벽을 허무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2004년 명동마을과 완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12년째 꾸준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회 등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친목 도모를 통해 지역 화합

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홍옥표 명동마을 이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해 봄에는 완산동에서 명동마을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여름에는 완산동 주민들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고령화 사회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 만65세 기초연금수급자 중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근로 의욕을 가진 건강한 신세대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다.

의학 발달과 영양 상태 개선 등으로 앞으로도 평균 수명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에 일 할 능력과 의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긴시간을 무지 상태로 보냄으로써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삶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급급 3월부터 11월까지 32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1,649명이 참여해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노인일자리) 만65세 기초연금수급자 중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도이다. 일을 통해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의 기회를 얻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시 다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전

북도 및 보건복지부에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과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보고 및 건의하여 163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92명이 9월~12월 까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는 햇살가득 노노케어, 지리산 둘레길 홍보지킴이 등 사업이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지역의 특산물인 부각만들기, 실버카페운영, 꿈꾸는 아동 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자녀결혼대 운영 외 6개, 노인복지관은 청춘교육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총 31개 수행기관에서 35개사업에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민선6기 공약사업인 '재깍보듬이' 사업은 남원시의 시책사업으로 시비 300백만원을 확보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각 수행기관별로 사업추진 기간 중 역량 강화 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받으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갖추어야할 소양들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공설시장 상인회 점포대학 운영

공설시장 상인회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점포대학 입학식을 16일 상인회교육장에서 명예학장인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6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가졌다.

점포대학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매주 2회(월·화) 2시간씩 50명의 상인들이 체계적인 시장 운영

을 위한 배움의 길에 나섰다.

교육내용으로는 시장환경개선의 이해, 고객서비스기법실습, 점포경영 및 진열관리, 상인 의식혁신과 조직활성화, 우수시장 견학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공설시장 상인회에서는 "이번 점포대학 교육을 통해 상인 의식개혁과 함께 상인회 조직력이 향상되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읍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임실군은 16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심민 군수 주재로 실과원소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읍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16년 읍지연습'을 앞두고 실과원소장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해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심민 군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읍지연습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읍지연습은 '함께해요 읍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2일 비상소집발령을 시작으로 25일까지 3박4일 동안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직원 450여명이 국지도 발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배양, 국가총력전 훈련 등을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비상시 전시대비 연습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6 읍지연습'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지연습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등이 참여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시대비계획인 총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무원의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전시대비연습이다.

첫날인 22일 전 공직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전시 주요현안과제 발표 및 토의, 생활밀착형 주민 체험 훈련 등을 25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읍지연습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서, 생물테러 대응 실제 훈련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16일 경찰서장 및 각 과·과, 파출소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6년도 읍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이날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는 읍지연습을 앞두고 안보영상 시청, 읍지연습의 배경 및 주요 일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읍지연습 기간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제402차 민방공 대피훈련, 도지사, 전북경찰청장 등이 참관하는 생물테러 대응 실제 훈련이 실시된다.

최규은 서장은 "전 직원이 철저한 준비로 내실있는 읍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위기관리 능력과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연습기간 복무 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